



초등 도덕과 5,6학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교과서 구성 방향 -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신현우¹, 김완수²

《 요 약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덕목과 규범을 내면화하여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새로운 도덕 교과서 구성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현행 5,6학년 도덕교과서를 분석하였고 해당 영역에 속한 인권, 공정, 통일, 인류애 등에 관해서 교육내용, 교육활동, 교육자료 등의 적정성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어서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3영역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교과서 분석과 새로운 성취기준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5,6학년 도덕과 교과서 3영역의 구성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인권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활동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대해서는 교실 공동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인류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자산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도덕 교과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shinnew@cje.ac.kr (주저자)
2. 익산가온초등학교 교사, kwseg@hanmail.net (교신저자)

I. 서론

2022년 새로운 도덕과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현재 3,4학년군 도덕과 교과서가 1차적으로 개발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학교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 뒤를 이어 올해에는 5,6학년군의 교과서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초등 도덕과 교육에 있어 도덕 교과서는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지닌 학습자료이다. 교과서를 통해 도덕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비롯하여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의 과정들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된다(유병렬, 2006). 그리하여 도덕과 교육공동체 내에서는 교과서 개발시기마다 내용의 적절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학생들의 수준, 실생활과의 연관성 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보다 발전된 교과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길병휘, 2003; 서강식, 2017; 유병렬, 2013a).

현재 초등학교에서 도덕과 교과서가 국어과와 더불어 유일(唯二)한 국정교과서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도덕 교과서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특성을 명확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핵심 아이디어의 등장, 내용 영역의 변경, 내용 체계 범주의 변경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계승이라는 기초 아래 변화의 폭을 조정하였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내용 영역의 구성을 비롯해 형식과 세부 내용 등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 특히 총론 차원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인 생태전환역량, 시민역량, 디지털 역량 등은 도덕과 내용 요소에 일정 부분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총론의 핵심역량 내용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학문적 접근을 모색하는 도덕과의 영역은 바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이다. 이 영역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 사고 등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덕목과 규범을 함양하고 도덕적 실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22). 구체적으로 이 영역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시작으로 차별 방지를 위한 존중, 통일문제, 인권존중, 공정, 인류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요소들은 교육과정 내용체계표에서 다른 영역과 같이 화두형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정·기능, 가치·태도와 어우러져 도덕과 교과서 내용의 기본 바탕을 구성한다.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구성에 있어 사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인권, 정의, 통일, 인류애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이러한 덕목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양상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도덕과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이 영역을 관통하는 도

덕적 가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 작업이 진행 중인 이때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대한 여러 주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 다가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속한 내용 요소들이 교과서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친화적인 도덕 교과서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교과 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시각을 투영하여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교과서 구성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3,4학년 교과서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6학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현행 초등 도덕과의 5,6학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교과서 분석기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영역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도덕과 교과서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체계표의 지식·이해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현행 초등 도덕과 5,6학년 교과서 3영역 분석

현행 초등 도덕 교과서는 많은 지점에서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국가·사회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인 만큼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비롯하여 영역의 내용 요소에 적합한 가치 및 덕목들을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교과서에 구현하고 있다. 또한 총론의 핵심역량과 도덕과의 교과 역량을 교과서 단원마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면서 교육과정 총론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교과서에 대해 생각하는 몇 가지 단점들도 드러났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역량 중심의 자율형 통합 심화단원(이하 자율형 단원)이 성격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구성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변순용, 2023). 본래 자율형 단원은 도덕과의 핵심적인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자율적인 수업 구성을 도모하고 가치·덕목의

통합적 심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먼저 통합적인 가치·덕목의 학습이 이루어진 뒤에 기본형 단원에서 이미 학습한 가치·덕목을 반복적으로 심화하면서 단원에서 기대하는 역량 함양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교육부, 2022).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자율적으로 도덕 수업을 구성해가며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신장하고 도덕능력 함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단원의 기본취지 및 구성에 대한 애매함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형 단원의 명확한 성격을 요구하고 있다(변순용, 2023).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율형 단원에 대한 복합적이며 직접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형식의 단원 설정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새로 도입된 각 요소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단원에 대한 논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대한 강조를 표방하는 기본적인 단원 설정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안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도 현행 도덕 교과서는 여전히 학습량 적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인한 학습 동기 저하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사실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닌 초등 도덕과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초등 5,6학년 도덕 교과서에 집중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기준을 수립하고 교과서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미흡한 점을 파악함으로써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초등 5,6학년 새로운 교과서 구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1. 교과서 분석기준

현행 도덕 교과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현황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교과서 평가 및 분석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병열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외국의 도덕 교과서 11권과 교사용 지도서 7권을 분석하여 장단점과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고(유병열, 2013), 서강식은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덕 교과서 개발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서강식, 2017). 이 밖에도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내용, 학습 방법, 발문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분석하는 작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연구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 중에서 김국현(2009)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 교과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 선정을 위해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인 초등 도덕 교과서와는 달리 중학교의 도덕 교과서는 검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교과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타당성, 객관성,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은 교과서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이를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한다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개발에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경험을 가진 교수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교과서 선정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 분석기준은 기본적으로 도덕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되 타 교과들의 분석기준과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도록 구성하고 있다(김국현, 2009).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5,6학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내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기준을 선택하고 <표 1>과 같이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1> 도덕과 교과서 분석 기준(김국현, 2009, 연구자 재구성)

분석 영역	평가 요소	분석기준
교육과정	충실성	-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반영 정도
내용요소	적정성	- 주당 수업 시수에 따른 분량의 적정성 - 학습 내용 수준의 적정성
	정확성	-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및 자료의 정확성
	중립성	- 인물, 성, 종교, 이념 등에 따른 왜곡이나 편견 여부
	참신성	- 내용이나 자료의 시의성 반영 여부
교수·학습	다양성	-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수·학습 활동 제공 여부
	적절성	- 학습목표 및 내용 요소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제시 여부
	실제성	-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 방법 제시 여부
평가	목표 일치성	- 단원의 목표와의 부합 여부
	다양성	- 다양한 평가 방법 제시 여부

분석기준은 크게 교육과정, 내용요소, 교수·학습, 평가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¹⁾. 영역의 성격에 따른 평가요소 및 구체적인 분석기준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성격에 맞게 연구자들이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충실성은 해당 교과서의 내용이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3영역의 성취기준을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타 교과와의 차별성 강화를 통해 도덕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덕적 가치와 덕목에 기초하여 도덕적 판단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문제 분석 및 해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둘째, 내용요소에는 적정성, 정확성, 중립성, 참신성 등이 포함된다. 적정성의 경우에는 학습 내용 수준의 적정성을 비롯해 분량의 적정성이 해당한다. 예컨대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도덕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에 관한 내용은 치열한 논의 끝에 3학년이 아닌 4학년에 정착된 바 있다. 이는 내용 수준의 적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적 적정성은 주당 한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과서에 담긴 내용 및 활동의 수 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정확성은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이나 자료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중립성은 내용에 대한 왜곡이나 편견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신성은 영역의 성격에 맞게 내용이나 자료가 시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교수·학습의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여부에 대해 평가하면서, 학습 목표 및 내용 요소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특히 실제 학생의 일상의 맥락에서 직접 경험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평가내용이 단원의 목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 2015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3영역 5,6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

2015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5,6학년군에서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인권에 대한 존중을 비롯하여 공정성, 통일 의지, 존중 및 인류애와 연관된 총 네 개의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과서 단원 또한 네 개로 구성된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 도덕과 5,6학년군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내용은 <표 2>와 같다.

1) 본래 선행연구에서는 ‘편집 및 표현·표기’ 영역이 존재하였지만 본 연구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영역은 연구자들이 삭제함.

〈표 2〉 2015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3영역 5-6학년군 내용요소(교육부, 2015)

	학년군	단원운영 학년
	5-6학년군	
내용요소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인권 존중)	5학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공정성)	6학년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통일 의지)	6학년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존중, 인류애)	6학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요소는 학년(군)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학습내용이다. 내용 요소가 교과서 단원에서도 핵심으로 등장하는 만큼 <표 1>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에 따라 내용 요소별로 5,6학년 도덕 교과서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인권 존중)

인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그 개별적 정의는 나름의 경험적, 논리적 근거를 지니지만, 서구의 계몽주의 영향 속에서 정착한 인권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한다(박병기, 2012). 그 하나는 인권이 옳음을 지향하는 의무론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권리로 상징되는 일종의 권리론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다(박병기, 2012). 이러한 인권 개념은 도덕과의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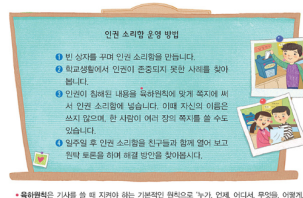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과 관련된 개념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가치의 형성까지 포함한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시기부터이다(김혜진, 2018). 도덕과에서의 인권 친화적인 교육은 단순히 인권 단원을 통한 인권 존중의 의미, 중요성, 태도 등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삶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다(김혜진, 2018).

현행 도덕 교과서 5,6학년군의 인권 관련 내용은 5학년 6단원에 등장하며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라는 단원명으로 제시된다. 이 단원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실천하며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1차시에서는 따돌림에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연계하여 문제행동을 찾고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후에는 인권 존중과 관련된 내용을 ‘인권존중나무’에 작성하면서 인권 존중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그리고 ‘실천 꼭’ 활동으로 인권생활 조사 설문지 활동을 제안하며 차시를 마무리한다. 2차시에서는 인권공동체 구성을 위한 학급회의를 통해 실천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前) 차시의 인권 생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급의 인권 생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 인권 규칙을 만들고 선언하며 실천을 다짐한다. 이어서 학급의 인권 소리함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운영하도록 한다. 3차시에서는 학급 인권 소리함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문제상황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탁토론 과정이 제시된다. 원탁토론 과정과 함께 학생들은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기장에 쓰거나 짝 인터뷰 활동 등을 통해 인권 존중의 마음을 다질 수 있다. 4차시에서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 안에서의 인권 존중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 문제를 생각해본다. 특히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기’ 활동을 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고 관련 읽기자료 등을 통해 세계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교육부, 2019a).

이와 같은 5학년 도덕과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표 1>의 기준을 통해 분석해보면 먼저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인권 관련 성취기준인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에 충실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요소의 영역에서는 개념 및 자료에 관한 정확성이나 이념 등에 관한 중립성 등의 요소에서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세계인권선언의 활용, 인권 설문지, 인권 소리함 등의 활동은 학생들이 타교과의 인권교육 과정에서도 이미 많이 경험한 활동이기 때문에 참신성의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시수에 따른 분량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실천 꼭’ 활동의 수행 방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천 꼭’ 활동은 생활 속에서 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몸과 마음에 익히는 활동이다(교육부, 2019c). 이 단원에서 ‘실천 꼭’이라는 활동은 그림 1과 같이 1~3차시에서 각각 인권 생활 조사 설문지, 학급 인권 소리함 운영, 짝과 인터뷰 활동 등으로 제시된다. 지도서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한 차시 수업 진행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교육부, 2019c). 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이 교사의 간단한 안내만을 듣고 자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인권 생활 조사 설문 활동에서는 구성된 조사단이 과제의 형식으로 설문지를 준비하고 설문조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거나 대체활동

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p>실천 1</p> <p>○ 인권 생활 조사 설문지를 만들어 우리 학급의 인권 생활 모습을 조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봅시다.</p> <p>우리 학급의 인권 생활 모습 조사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문 조사 활동을 희망하는 친구 4~6명을 뽑어 설문 조사단을 구성합니다. 2 설문 조사단은 선생님과 조서에 필요한 설문지를 받아 준비합니다. 3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설문 조사를 합니다. 4 조사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5 다음 도덕 수업 시간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p>실천 2</p> <p>○ 우리 학급의 인권 소리함을 만들어 운영해 봅시다.</p> <p>인권 소리함 운영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 상자(예: 우유 인형 소리함을 만듭니다.) 2 학교생활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못한 사례를 찾아 봅니다. 3 인권이 침해된 내용을 숙취(숙취)에 맞게 쪽지에 써서 인권 소리함에 넣습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으며,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쪽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4 일주일 후 인권 소리함을 친구들과 함께 열어 보고, 침해 부분을 제거 해결 방안을 찾아줍니다. <p>* 숙취(숙취)는 기사를 등 태 지퍼에 하는 기본적인 형태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의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p> 	<p>실천 3</p> <p>○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학과 인터뷰해 봅시다.</p> <p>당신은 인권 소리함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p> <p>당신은 우리 반 친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무엇을 할 수 있나요?</p> <p>우리 반 친구들이 당신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 주기를 바라나요?</p> 
<p>인권 생활 조사 설문지 활동</p>	<p>학급 인권 소리함 활동</p>	<p>짜과 인터뷰 활동</p>

[그림 1] 5학년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사는 우리' 단원의 '실천 꼭' 활동(교육부, 2019a)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볼 때 도덕 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에 적절한 교수·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영상이나 다양한 활동 등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시된 활동들은 학생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과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할 때 4차시에 제시된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기 활동'²⁾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데 있어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활동은 주변의 친구들을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고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중한 이유에 대해 공유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친구를 존중할 수 있는 맥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활동만으로 친구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길러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이 활동의 취지를 살려 진행된다면 친구가 소중한 까닭에 대한 성찰 이후에 친구를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상기하고 그 이후 공유하는 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영역은 단원의 마무리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 제시된 핵심 개념인 인권, 존중, 다름, 권리와 책임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자신 스스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 등을 성찰해 가는 과정은 단원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사다리 활동'을 응용하거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과정에서 세부적인 숫자의 형태로 배움의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은 다른 단원과 비교할 때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2).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기 활동 방법: 1. 모둠별로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2. 마음을 정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3. 모둠원들이 참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4. 모둠원들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본다. 5. 모둠원들이 소중한 까닭을 아래의 빈칸에 쓴다. 6.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쓴 글을 읽는다(교육부, 2019a)

2)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공정성)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도덕 교과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쟁점을 알아보고 토론하면서 시민성을 함양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롤스(J. Rawls)는 정의론을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어떠한 임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대립되는 주장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Rawls, 황경식 역, 2003). 이러한 그의 주장은 공정성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며 초등 도덕과에서 공정성에 관한 교육 또한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대립하여 가치 선택에 따른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종합적인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판단 능력 함양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1차시에서는 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공정함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영상과 관점 채택을 위한 놀이 등을 수행하며 공정한 생활의 중요성과 노력 방법들을 고민해본다. 또한 공정한 생활과 그 반대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예상해 봄으로써 공정한 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차시에서는 빵을 나누는 활동과 함께 공정한 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본다. 공정한 생활과 관련된 공정의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차시에서는 공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바른 판단 능력 함양을 모색한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하고 여러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이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불공정의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떠올리며 앞으로 공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생각해본다. 마지막 4차시에서는 ‘초콜릿 공정무역’ 영상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동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공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과 노력들을 생각해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공정에 관한 현행 교과서 내용을 교육과정에 따라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교육부, 2015)는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내용 요소면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나 빵을 공정하게 나누는 활동, 달리기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공정에 관한 친숙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에 관한 4차시 내용 속 ‘초콜릿 공정 무역’과 같은 소재는 같은 영역의 인류애와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도덕과 지도서에는 ‘착한 초콜릿’에

대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생산된 카카오를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초콜릿으로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19d). 이로써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도덕수업의 과정에서는 어린 나이에 노동시장에 던져지게 된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통해 인류애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좀 더 공정에 초점을 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흐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정에 관해 쉽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일상생활 사례를 도입한 점도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평가 또한 단원의 마무리에서 길찾기 활동과 같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하면서 서도 단원의 목표에 부합하는 충실한 질문들을 던지고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다짐을 공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통일의지)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외면받고 있다는 연구결과 등을 감안할 때(서울대, 2023) 초등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통일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구상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관한 1차시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이 담긴 영상을 통해 통일의 장점을 알고 통일 이후 그려질 미래의 모습을 이산가족 문제, 안보 문제 등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상상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2차시에서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토의과정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탐색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을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함께하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3차시에서는 통일관련 그림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방법과 과정을 안내한다. 이후에는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교하며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바람직한 통일과정을 고민해본다. 더불어 분단 이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 노력을 살펴보고 평화통일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기른다. 4차시는 통일의지를 다지는 차시로서 통일 후 통일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상상해보고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북한으로의 여행계획을 구상하는 활동 등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단원 또한 일련의 활동들이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

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갖는다는 성취기준과 부합하고 있다. 내용 요소 면에서도 수준이나 분량의 적정성, 내용의 중립성 등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지만,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참고자료 누리집 사례들은 지속적인 점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인터넷 통일학교’는 tongil.moe.go.kr의 주소로 제시되어 있지만(교육부, 2019b) 실제 접속했을 때 해당 주소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교과서 제작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최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내용의 중립성 문제 또한 통일이라는 민감한 주제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만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구성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통일에 대한 초등학생의 관심 분야를 연구한 각종 보고서와 조사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일교육 방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국립통일교육원, 2024; 김완수, 이경무, 황명자, 2023). 따라서 북한 사회의 실태에 관한 내용도 도덕과에 일정 부분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실상 파악에 관한 내용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덕 교과서에는 북한에 대한 실태보다는 통일한국의 모습과 그 이후에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예상, 통일을 위한 노력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은 다양한 영상자료 및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고 각각의 차시가 추구하는 학습 목표에 적합한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또한 평화를 비롯하여 단원의 핵심 개념 등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가 목표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인류애)

오늘날 지구촌에는 여러 인종이 서로 다른 국적, 문화, 종교 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지구촌의 평화와 인류애를 구현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구촌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는 주요한 덕목으로 인정되었다. 평화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추구해 온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며 평화 없이는 행복도 없고, 평화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Hunt, 김문호 역, 2003). 부버(M. Buber)는 평화를 평범한 평화와 위대한 평화로 구분하였다(강선보, 1993: 108). 평범한 평화는 전쟁의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양측간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최관경, 2004; 최관경, 2009). 반면에 위대한 평화는 양측간의 격차 문제를 제거하면서 그들의 삶과 문화적 기준을 개선해 나가는데 양측이 협력하는 상황을 가리킨다(최관경, 2004; 최관경, 2009). 인류애를 기반으로 우리는 위대한 평화와 같이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류애에 관한 1차시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한 영상을 통해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지구촌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2차시는 우리와 지구촌 이웃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롤스의 '무지의 베일'에 기반한 놀이활동을 통해 지구촌 이웃의 입장을 헤아리는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도우려는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게 된다. 3차시에서는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해 안내하는 영상을 시청한 뒤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어린이 국제회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시 인류애의 가치를 깨닫고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도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학습한다. 4차시에서는 지구촌 이웃의 고통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혜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을 살펴볼 때 인류애와 관련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토론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함양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의 구성을 볼 때 해당 성취기준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요소에서도 적정성, 정확성, 중립성, 참신성의 문제에 대해 현재 교과서는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놀이활동들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는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혜³⁾'와 같은 활동은 실제 학생들이 인류애의 실천과 연결짓지 못하고 우정과 관련지어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서에서도 이 영역에서 평화를 주요한 가치로 언급하고 있고 인류애의 실천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 가치이므로 교과서에서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지혜 활동 방법: 1. 친구들과 함께 원모양으로 빙 둘러선다. 2. 각자 원의 중앙을 지나 반대편에 있는 물건 또는 지점을 목표로 정한다. 3. '앞으로' 신호에 따라 목표를 향해 세 가지 걷기 방법대로 차례로 걷는다(교육부, 2019b).

Ⅲ.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도덕 교과서 구성 방향

2015와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5,6학년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추구하는 덕목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적인 내용 요소의 질문이 변화한 것처럼 실제로 전개될 도덕 교과서의 구성 방향 또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도덕 교과서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제안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새로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과 함께 새로운 도덕 교과서가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5,6학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성취기준 분석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영역별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이후 궁극적으로 학생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도달점을 의미한다. (교육부, 2022). 성취기준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도달점 행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에 성취기준의 이해와 적용의 정도는 교육의 성공 수준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신호재, 이수진, 2019). 2022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도덕과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5,6학년군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인권, 정의, 통일, 인류애 등의 주제와 연관되며 이는 <표 3>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3>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3영역 5-6학년군 지식·이해 및 성취기준(교육부, 2022)

	지식·이해(내용요소)	관련 성취기준
5-6학년 군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도03-01]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6도03-02] 정의에 관한 관심을 토대로 공동체 규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직접 공정한 규칙을 고안하며 기초적인 시민의식을 기른다.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6도03-03]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바람직한 통일과정과 통일 국가의 사회상을 제시한다.

	지식·이해(내용요소)	관련 성취기준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도03-04]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며 인류애를 기른다.

도덕과의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하면서 도덕적 지식이 지니는 실천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여 도덕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교육부, 2022). 이에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내용 범주의 요소가 두 개 이상이 반영되어 구성되었다.

성취기준의 위상은 학생의 학습 도달 수준에 대한 검증을 넘어 도덕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기준으로 반영된다(이경원, 박영주, 김완수, 2023). 따라서 성취기준은 전통적으로 평가 기준의 전제가 되면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성취기준의 분석과정은 교과서의 내용구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도03-01]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 인권 관련 문제 사례 조사하기(과정·기능)
 인권에 관한 감수성 → 인권 감수성 함양(가치·태도)

[그림 2] 2022 개정 도덕과 성취기준 구조(교육부, 2022)

먼저 새로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인권 감수성의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인권 관련 문제 조사, 인권 감수성의 함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기준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인권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의 자세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라는 정의적 능력을 요구하며 이것이 일상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완수, 2024).

두 번째로 정의로운 공동체에 관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정의에 관한 관심을 토대로 공동체 규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직접 규칙을 고안하며 기초적인 시민의식을 기르는 과정을 주문함으로써 3,4학년군과의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학급 인권공동체를 만들 때 학급 인권 규칙을 제정했던 것과 같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규칙을 학생들이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초적인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는 시민교육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 통일에 관한 성취기준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바람직한 통일과정과 통일 국가의 사회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도덕과 교육과정이 통일 이후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 예상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학습하는 소극적 차원의 노력이었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국가의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자라날 학생들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확장하여 그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도 교과서 내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애에 관한 성취기준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류애의 함양을 모색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지구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 민감성의 함양과 함께 현재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한다. 이는 모두가 하나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삶의 길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적 맥락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2022 도덕과 5,6학년 3영역 교과서 내용구성 방향 제안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기초적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의 문제와 민족의 오랜 과제인 통일 문제, 평화의 관점에서 인류애를 다루게 된다. 그런데 2015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과는 달리 화두형 질문 뒤에 덕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이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로 변경되면서 인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류애에 관한 내용요소 또한 직접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기존의 공정과 관련된 내용이 3,4학년군으로 이동하면서 5,6학년군에서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규칙을 언급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함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문제 또한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만을 다루었던 내용에서 확장하여 통일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통일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현행 교과서에 대한 분석 기준 및 결과와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새로운 5,6학년 도덕과 교과서 내용구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교과서가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분석기준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내용요소 및 교수·학습에 초점을 두고 구성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교육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내용은 균형잡힌 인권의식의 함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의식은 강화되고 있지만 자신의 인권 보호만을 강조할 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유병열, 2013b). 따라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비롯하여 타인의 인권존중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에 관한 내용요소를 살펴볼 때 2015의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나 2022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이러한 인권교육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이 인권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방법적인 차원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에서 인권 감수성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권 감수성은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할 때도 인권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교실 학습 상황 속에서만 확인해야 한다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구성할 때 교육과정 재구성을 염두에 두고 타교과 및 현장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운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주적인 자치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장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교과서에 학생들의 흥미 및 발달적 수준과 초등 도덕과의 물리적 조건을 반영하여 인권관련 활동을 설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2)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현행 초등 도덕과 교과서에서 정의에 관한 내용은 주로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정이 이동한 대신 5,6학년군에서는 정의로운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규칙,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민역량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전 학년에서 배운 공정을 포함하여 정의라는 덕목에 속해 있는 내용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이다.

콜버그(L. Kohlberg)의 자유주의적 도덕교육론은 자율성과 합리성의 강조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 존재가 지닌 공동체적 속성과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콜버그 또한 후기에는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을 추구하며 민주적인 공동체로서의 학교 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L. Kohlberg, 1985). 특히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이 주로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급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학급을 정의로운 공동체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정의로운 공동체란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속에 융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며 차등의 원칙에 따른 예외적인 불평등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서에서 정의로운 교실 공동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서도 무지의 베일을 활용하여 차등의 원칙을 이해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림책, 영상자료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된 도덕 교과서에서 통일에 관한 내용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업방법적인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와 달리 초등학생들의 삶에 디지털 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적 성격을 지닌 현대의 초등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다른 학습 및 행동 유형을 보이고 있다(J. Marchetta, M. Masiello, M. Rosenblatt, 2018).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적 변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고 관계적 차원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활용 성향이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도덕 교과서의 통일교육의 활동 또한 텍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통일교육의 흥미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기술 기반의 교육환경 구축과 함께 통일교육의 장에 게임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박형빈, 2019). 이뿐만 아니라 AR, VR 등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통일교육방법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통일관련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통해 연계활동을 구성하는 것도 통일교육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리적, 심리적인 교류의 확장으로 인해 국가 간 연계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라고 불리는 현상은 20세기 말에 되면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 전쟁, 난민 등 국가 차원을 넘어 인류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계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산재해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더 이상 이웃 국가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강대국 중심의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장된 인류애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해당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화된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세계시민의식이다. 글로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개념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한경구, 2017). 도덕과에서도 평화와 인권의 적극적인 확

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이 인류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처한 문제상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문제에 다루기 보다는 실제 구체적인 문제 사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류애를 함양하는 것으로 교육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덕 교과서는 다른 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감수성에 기반하여 그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로 제시해야 한다.

오늘날 인간은 긴밀하게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높아진 상호의존성 속에서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 학생들은 도덕교육을 통한 인류애의 함양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생의 가치를 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V. 결 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교육 격언 속에서 교사의 질을 규정하는 여러 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수업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교과서이다. 예전과 같이 금과옥조는 아니지만 교과서는 여전히 교사의 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한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교육과정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교과서 개발 문제이다. 그리고 도덕과는 국정교과서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이 문제가 다른 교과에 비해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인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정의(正義)라는 핵심 가치의 다양한 사회적, 학문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요구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영역은 시의성을 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의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는만큼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의미를 반영하고 영역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교과서 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2015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해당하는 5,6학년 도덕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다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내용 요소별로 개정이 필요한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먼저 인권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실천 쪽'에 제시된 활동들의 수준과 물리적 한계의 고려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공정에 관해서는 '초콜릿 공정 무역'과 같은 내용이 영역의 또다른 요소인 인류애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통일에 관해서는 참고자료 누리집의 최신화 필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 반영 필요 등에 대해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류애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활동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달라진 새로운 성취기준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도덕 교과서 구성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먼저 인권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실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인권에 관한 다양한 활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고 정의로운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규칙의 중요성을 알고 실제적인 교실 공동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에 관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비롯하여 디지털 네이티브인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한 통일교육의 적용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류애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나라 사람의 문제에 공감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교과서 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고 도덕교육 또한 이러한 변화에 무관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주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에서도 이미 제안하였듯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차원에서 좀 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디지털 기기의 적절한 조화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AR, VR과 같은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현장의 특성상 교과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학습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도덕과도 예외는 아니다. 아무쪼록 새로 개발되는 도덕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

※ 논문 투고일: 2024. 9. 30. ※ 논문 수정일: 2024. 11. 13. ※ 게재 확정일: 2024. 11. 29.

〈참고문헌〉

- 강두호(2014).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틀로서 제시된 관계개념의 존재론적 함의. **도덕윤리교육** 45, 1-22.
- 강선보(1993). 남북한 민족간의 실존적 불신 해소를 위한 평화교육의 한 방안. **통일문제연구** 10, 85-122.
- 교육부(2015).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a). **도덕 5**. 서울: 지학사.
- 국립통일교육원(2023). **청소년 통일사전**.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 국립통일교육원(2024). **2024 통일문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 교육부(2019b). **도덕 6**. 서울: 지학사.
- 교육부(2019c). **도덕 5 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 교육부(2019d). **도덕 6 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 교육부(2022).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길병휘(2003). 도덕 교과서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 검토. **초등도덕교육**, 13, 5-45.
- 김국현(2009). 도덕과 교과서 선정 평가기준 연구. **윤리교육연구**, 18, 23-46.
- 김완수(2023).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윤리교육**, 78, 23-46.
- 김완수(2024). 초등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인권 관련 내용 분석 연구: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44(1), 55-69.
- 김완수, 이경무, 황명자(2024). 초등교사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 콘텐츠 효율적 활용 방안 -국립 통일교육원 영상 콘텐츠 활용과 분석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교육**, 82, 69-95.
- 김혜진(2018). 도덕 교과서의 인권 친화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2015 개정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61, 159-192.
- 권혜선(2013). 초등학교 교사의 도덕과 교과서 활용에 관한 경험. **201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원고**, 451-472.
- 박병기(2012). 한국불교에서 삶의 의미 문제와 인권·원효와 지눌의 깨달음 개념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7, 203-221.
- 박형빈(2019).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원주민 코호트를 위한 도덕심리학 기반 통일교육의 쟁점과 발전방향-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63-384.
- 변순용(2023). 초등 도덕 3,4학년 교과서의 개발방향과 특징. **초등도덕교육**, 84, 265-283.
- 변중헌(2012).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초등도덕교육**, 39, 23-46.
- 서강식(2017).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도덕교육 고찰. **도덕윤리교육**, 57, 131-157.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3). **2023 통일의식조사 신냉전 한반도, 멀어지는 통일**.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신호재, 이수진(2019).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분석. **도덕윤리교육**, 65, 189-211.
- 유병열(2006).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개발 방향. **도덕윤리교육**, 22, 51-80.
- 유병열(2013a). 초등 도덕과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외국 도덕 교과서 분석-영미권 교과서를

-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38**, 125-148.
- 유병열(2013b).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9**, 239-264.
- 이경원, 박영주, 김완수(2023).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개발에 대한 일고찰. **초등교육연구**, **36**(2), 183-222.
- 이영문(2012).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다문화 단원 분석 연구. **초등도덕교육**, **39**, 1-28.
- 조성현, 정영선(2021).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5**(1), 347-383.
- 조은지, 김규원, 최지혜(2022). QR코드가 반영된 도덕 교과서 구성 방안 탐색. **교과와 교과서 연구**, **2**(2), 43-55.
- 차우규(2003). 학교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시안 탐색. **열린교육연구**, **11**(1), 195-218.
- 최관경(2004). 평화와 평화교육. **교육사상연구**, **14**, 1-27.
- 최관경(2009). 21세기의 평화와 평화교육. **교육사상연구**, **23**(1), 1-25.
- 허재복(2023). 초등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 개념의 적용과 그 실제. **초등도덕교육**, **85**, 261-294.
- 황명자, 추병완, 배성제, 황인표(2023). 2022년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78**, 189-211.
- Hunt, S. A.(2003). **평화의 미래**. [The Future of Peace] 김문호 역. 서울: 아름다운 사람들. (원저출판년도 2002년)
- Marchetta, J., Masiello, M., Rosenblatt, M.(2018). Preferences and Learning Behaviors of Digital Natives. *Proceedings of the Northeast Business & Economics Association*, 193, 173-176.
- Kohlberg, L.(1985).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Theory and Practice*, 27-87.
- Rawls, J.(2003).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서울: 이학사. (원저출판년도 1971년)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oral Textbook Composition of 'Relations with Society and Community' Area in the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Focusing on 2022 Revised Elementary Moral Curriculum–

Shin, Hyunwoo¹, Kim, Wansu²

The area of 'relations with society and community' cultivates the ability to internalize and practice the values and norms that must be equipped as a democratic citizen. In this study, a new direction for the composition of moral textbooks in this area was sought. For the study, the current moral textbook was first analyzed and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materials regarding human rights, fairness, unification, and human love in the relevant area. Subsequently,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third areas of the 2022 revised elementary moral curriculum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contents that are being pursued with emphasis in the new curriculum.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textbooks and new achievement standards, the direction of the composition of new 5th and 6th grade moral textbooks was proposed. First, regarding human rights, the necessity of applying practical activities was emphasized, and for a just community, it was argued that the contents of the operation of the classroom community should be reflected in the textbook. In addition, he insisted on the need to apply various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gamification, and specifically proposed setting human love in a way that recognizes and empathizes with the problems of people in other countries and seeks solutions in their own situations.

Keywords : moral textbook, relations with society and community, 2022 revised elementary moral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innew@cje.ac.kr (Lead Author)

2. Teacher, Iksan Gaon Elementary School, kwseg@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